전남 소프트테니스, 회장기대회 '메달 잔치'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 팀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팀

순천여고 금 1·은1·동 2 수확
개인단식 출전 4명 모두 입상
순천대·전남도청 등도 동메달

전남 소프트테니스팀들이 올 시즌 전망에 청신호를 켰다.

2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이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42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여고부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순천대학교는 같은 대회 남대부에서 동메달 2개, 남일부 순천시청과 여일부 전남도청은 각각 동메달 1개씩을 따냈다.

지난해 4개 대회에 출전해 전종별을 석권한 순천여고는 이번 대회 개인단식에 출전한 선수 4명이 모두 입상, 여고부 최강의 면모를 발휘했다.

순천여고 4명은 모두 여고부 개인단식 준결승에 올라 경합했다. 준결승 1경기에서 신희선(2년)이 김여빈(2년)을, 강주현(2년)이 김가현(3년)을 각각 4-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신희선이 강주현을 4-1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은메달과 동메달 2개를 순천여고에서 모두 따냈다.

남대부 순천대학교는 개인단식에 출전한 배이수(2년)가 최성림(대전대 4년)에게 1-4로 패했고, 남대부 단체전에서 인하대학교에 0-2로 패해 동메달 2개에 만족했다.

지난해 순천여고의 전성기를 이끌며 올해 전남도청에 입단한 박빛나-김운진 조는 여일부 개인복식 준결승에서 국가대표 문혜경-백설(NH농협)조에 0-4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남일부 순천시청은 단체전 준결승에서 달성군청에 0-2로 패해 3위에 올랐다.

이문재 전남소프트테니스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대회에서 전남 팀들이 서로 응원하며, 전남 대표로서 최선을 다 한 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최인정 카잔 에페 월드컵 우승
광주 서구청 강영미는 동메달

강영미

강영미(광주 서구청)가 지난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월드컵 동메달 이후 1년 1개월 만에 국제대회 시상대에 섰다.

강영미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에페 월드컵 여자 개인 4강전에서 루티에게 12-15로 져 동메달을 획득했다.

강영미는 8강전에서 대표팀 동료 송세라(부산시청)를 15-9로 물리쳐 4강에 올랐다.

에페 국가대표 최인정(계룡시청)은 1년 만에 열린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최인정은 같은 대회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알리야 루티(프랑스)를 15-9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최인정은 2019년 5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대회 이후 개인 통산 두 번째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우승으로 최인정은 여자 에페 세계랭킹 2위로 올라섰다.

여자 에페 대표팀은 지난해 3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그랑프리 대회에 참가한 이후 귀국해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선수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바 있다.

이후 1년 만에 다시 열린 국제대회에서 우승자를 포함해 2명의 메달리스트가 나오며 도쿄 올림픽의 희망을 밝혔다.

같은 곳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박상영(울산시청)이 10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최인정

궁도수련장 관덕정 직영체제 전환 놓고 갈등

광주시궁도협회, 무예·인문학·기예닦는 융복합 공간 운영 계획
관덕정 사원(射員)들 "전통 무시하고 독단적인 운영 안돼" 반발

광주시궁도협회에서 궁도수련장인 광주 관덕정을 직영체제로 전환할 방침을 밝히자 관덕정 사원(射員)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광주시궁도협회(시궁도협회)와 관덕정 사원들에 따르면 시궁도협회가 오는 5월부터 광주 남구 사동에 있는 관덕정을 직접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시궁도협회는 지난 2018년 광주체육회와 맺은 '체육시설(관덕정) 운영 계약서'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관덕정은 무예와 인문학, 기예를 닦는 융복합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하지만 관덕정 사원들은 "관덕정은 독립적인 단체이며, 소속 회원의 동의없는 시설 운영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시궁도협회가 광주시체육회와 운영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궁도협회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 등 가결절차를 무시하고 협회장 개인의 직권으로 체육회와 운영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궁도협회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관덕정 운영 주체를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고 지적한다.

관덕정은 수백년 동안 사원들이 대표 등을 뽑아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공간으로, 지난 1984년 광주시에 기부채납됐다. 광주시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 소유 공간이 된 관덕정은 그동안 150여명 사원이 일정 비용을 내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 전임 시궁도협회 집행부에서도 이를 인정해왔다.

관덕정의 한 관계자는 "시궁도협회 새 집행부가 관덕정 사원들과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조직 자체를 와해하려 한다"며 "관덕정은 수백년 전통에 따라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전국 어디에도 궁도협회에서 직영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집행부가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면 관덕정 사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관덕정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은 독단적인 처사이며 관덕정의 수백년 역사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궁도협회는 관덕정에서 재정문제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운영 난맥상이 드러나 협회에서 관덕정을 직영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궁도협회의 고위간부는 "지금까지 관덕정에서 제대로 시설 사용료를 받지도 않고 이를 계좌로 투명하게 관리하지도 않았다. 시설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료도 사실상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등 폐해가 있었다"며 "시궁도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인 시궁도협회와 광주시간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는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대의원회의, 이사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관덕정 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사람을 파견해 시설과 운영을 투명하게 할 방침"이라며 "관덕정 사원들은 법에 따르면 관덕정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황의조 시즌 9호골
팀은 1-3 역전패

황의조(29·보르도)가 시즌 9호 골을 터트리며 득점 행진을 이어갔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황의조는 22일(한국시간) 프랑스 몽펠리에의 스타드 드 라 모송에서 끝난 2020-2021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30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28분 선제골을 기록했다.

직전 디종전에서 멀티골을 작성한 황의조는 이날 2경기 연속 골을 넣으며 자신의 프랑스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9골로 늘렸다.

하지만 그의 풀타임 활약에도 보르도는 상대에 3골을 내리 내주며 1-3 역전패를 당했다.

최근 정규리그 5경기에서 1승 4패로 부진한 보르도는 13위(승점 36)에, 몽펠리에는 8위(승점 44)에 자리했다.

보르도는 전반 28분 황의조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폴 바이세가 뒤쪽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를 황의조가 가슴으로 떨어뜨린 뒤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슛으로 깔끔하게 차 넣었다. 황의조의 시즌 9호 골.

그러나 몽펠리에가 7분 뒤 균형을 맞췄다.

살로몽 삼비아의 오른발 프리킥이 그대로 골 그물을 출렁였다.

몽펠리에는 후반 13분 가에탕 라보르드의 강한 왼발 슛으로 역전 결승 골을 뽑아냈고, 11분 뒤에는 스테피 마비디디가 한 골을 더해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 몽펠리에에서 뛰는 윤일록은 이날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존스, PGA 혼다 클래식 우승
임성재 8위…두달만에 '탑10'

맷 존스(41·호주)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 클래식(총상금 7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존스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골프클럽(파70·712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로 2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존스는 2위 브랜던 해기(미국)를 5타 차로 넉넉하게 따돌리고 2014년 4월 셸 휴스턴 오픈 이후 7년 만에 투어 통산 2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26만 달러(약 14억2000만원)다.

3라운드까지 3타 차 선두였던 존스는 이날 에런 와이즈(미국)에게 9번 홀까지 1타 차로 추격을 허용했다.

그러나 와이즈가 10번 홀(파4) 약 8m 거리에서 퍼트를 네 번이나 하며 트리플 보기를 적어낸 덕에 비교적 손쉬운 우승을 차지했다.

와이즈가 이 홀에서 3타를 잃으며 존스와 격차가 4타로 벌어졌고, 이후 존스는 줄곧 5타 안팎의 리드를 유지하며 7년 만에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자신의 유일한 PGA 투어 우승을 일궈냈던 임성재(23)는 최종 합계 5언더파 275타,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비록 타이틀 방어에는 실패했지만 올해 1월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 공동 5위 이후 약 2개월 만에 '톱10' 성적을 냈다.

임성재는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 이후로는 이 대회 전까지 7개 대회에 출전해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12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15번 홀(파3)까지 1오버파로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임성재는 '베어 트랩'의 두 번째 홀인 16번 홀(파4)에서 2m가 조금 넘는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고 이날 이븐파를 맞췄다.

'베어 트랩'은 이 코스에서 가장 어렵다는 15~17번 홀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이 코스는 '골든 베어'라는 별명의 니클라우스가 2000년대 초반 리모델링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나리
2관	소울, 모리타니안, 웨이 다운
3관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모리타니안, 웨이 다운
4관	미션 파서블
5관	미나리, 리스타트
6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리스타트
7관 씨네커플	정말 먼 곳, 미션 파서블
8관 씨네커플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그녀가 사라졌다, 톰과 제리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